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공동 성명

1. 제14회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개요

제14회 한중일 문화산업포럼은 2021년 10월 27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 산업발전사 가오정 사장,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 일본 경제산업성 노하라 사토시 상무정보정책국장 및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3국 관련 기구 대표 등이 포럼에 참석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의장국을 담당했다.

본 포럼에서 3국은 한중일 디지털문화산업의 합작 기회와 경로에 대해 심도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3국은 디지털문화산업이 문화산업 합작의 중요한 영역이고 국민문화 수요와 국민역량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코로나19 이후 문화산업의 회복과 번영 발전을 촉진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3국은 상술한 의제에 대해 향후 계속해서 심도있는 토론 전개, 디지털문화기업 지원, 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합작 조직 및 공동 발전 촉진에 동의했다.

3국은 한중일 문화산업포럼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포럼이 3국 정부 간의 문화산업 교류 합작의 중요한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3국의 문화기업 교류합작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고 확신했다. 3국은 향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 3국의 문화산업 교류와 합작 강화

3국은 향후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의 강화, 3국 간 문화산업 정책과 조치 및 발전 경험 교류 추진에 모두 동의했다. 그 외에 3국은 지원

및 서비스 플랫폼 건립을 추진하는 등 기업과 업계의 교류협작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3국은 문화산업 기업의 교류 협작 강화를 지지하고,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각국에서 개최하는 온·오프라인 국제 문화산업 박람회 상호 참가를 장려하며, 협력 프로젝트 전개를 추진하고, 비즈니스 상담 등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3국은 기업의 한중일 디지털문화산업 연합 인큐베이팅 메커니즘 협작과 정기적인 온라인 활동 전개를 지지하고, 디지털문화산업의 인재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3. 다음 포럼에 관하여

3국은 2022년에 제15회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15회 포럼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관련 정부부문과 문화산업계의 포럼 참여를 적극 지지한다.

2021년 10월 27일, 제14회 포럼은 본 공동 성명을 통과시켰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문건을 작성했으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보유한다. 만약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을 기준으로 한다.